[ 12월 8일 점심시간 ]

“......오늘도 불고기였네.”

입에 남은 불고기의 지긋지긋한 간장 맛에 아주 넌더리가 난다.

두 번이나 나오는 건 너무하잖아. 일주일에 밥을 다섯 번 먹는데 거기서 두 번이 불고기라니.

영양사가 매점 아주머니 뒷돈이라도 받은 거냐고!

자판기에서 입가심용 음료수를 사서 학생회실로 올라갔다.

반에 있으면 눈치 보이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편하게 마셔야지.

잠겨있지 않은 학생회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웅?”

도래솔 선생님이 볼을 빵빵하게 채우고 빵을 먹고 있었다.

매점에서 인기 있는 치즈케이크맛 빵에 초콜릿 칩 머핀. 거기에 커피 우유까지 함께라니.

내가 먹었던 불고기 점심보다 몇 배는 맛있어 보인다.

“그, 무흥 일이이?”

“도래솔 선생님. 혼자 비겁하게 빵 먹기에요?”

“아, 아이야! 이언.”

“꿀꺽.”

“이건 간식이야, 간식!”

“어? 점심 드셨어요?”

“......점심 먹기 전 간식이야!”

눈 가리고 아웅이잖아. 불고기 급식 먹기 싫어서 빵 먹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치즈케이크 맛있다~”

근데 굳이 맛있게 먹는 사람을 괴롭히고 싶진 않아서 넘어가기로 했다.

“평소에도 여기서 점심 드세요?”

“그러니까 점심이 아니래두. 선생님은 가아끔, 아주 가아끔 간식 먹으러 오는 거야.”

“하아아. 교무실에서 먹으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나눠줘야 하잖니. 혼자만 맛있는 걸 먹으면 그렇잖아?”

알 것 같다. 특히 도래솔 선생님처럼 젊은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 눈치도 봐야겠지. 공감 가는 이유다.

“이거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말하면 안 된다? 교감 선생님이 알면 선생님 혼나!”

“대신......”

선생님은 아직 뜯지 않은 초콜릿 칩 머핀을 보고 주저하다

“이거 먹고 비밀로 해주기야?”

먹던 치즈케이크에서 빵조각을 떼줬다.

아니, 선생님이 뇌물을 주는 건 둘째치고, 줄 거면 제대로 된 걸 주라고요.

입에 넣은 빵조각은 사르르 녹아 순식간에 없어졌다.

“.......너무 조금이었니?”

“그렇긴 하네요.”

“그, 그치? 그러면 뭘 주지.”

“초콜릿 머핀은 아직 안 뜯은 것 아니에요?”

“저건 안 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해서 마지막에 남겨둔 거란 말이야!”

“대신에 있지! 그래. 대신에! 궁금한 거 알려줄게!”

으음. 궁금한 거라. 학생회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만….

“자! 뭐든 물어보렴! 선생님은 대답할 준비 됐어!”

과연 도래솔 선생님이 잘 설명해줄 수 있을까.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아서 결국 은혜 선배한테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다.

선생님이 대답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 궁금한 거라면 그거를 묻는 게 좋겠다.

“도래솔 선생님은 처음 미지 만났을 때 어땠어요?”

“어머? 그게 궁금하니? 의외네.”

“저는 채아람이 와서 도와줬지만, 선생님은 어떻게 했나 궁금해서요.”

“그야 이걸로 쓰러뜨렸지.”

선생님은 손거울을 드러내 내게 보여줬다.

“쓰러뜨렸다고요? 그걸로요?”

“지금은 그냥 거울이지만...예전엔 선생님 거울도 엄청나게 셌다! 미지를 있지!”

“이렇게! 슉! 슈슉!”

...이 사람. 미지를 대체 어떻게 쓰러뜨린 거야.

“선생님. 솔직히 안 믿기긴 하는데요.”

”진짜야, 진짜! 이렇게 슈슉! 했다고! 그러니까...“

미심쩍은 눈빛을 거두지 않자 선생님이 구차하게 설명을 추가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지! 그때 미지랑 만났을 때 정말 슈슉 했다니까!”

선생님은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 듯이 위를 쳐다보며 말했다.

“겨울 어느 날 밤에 있지. 혼자서 논길을 따라서 걷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거야.”

“선생님은 시골에 살아서 밤길이 진짜 깜깜했거든? 완전 무섭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허둥지둥 도망가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뒤를 딱 봤는데 귀신이 선생님 뒤에 있는 거야!”

“너무 놀라서 넘어지고는 논에 빠졌지. 무서워서 일어나진 못하겠는데 귀신은 다가오고,”

“그런데 선생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내밀었는데.”

“그게 손거울이었어. 거기서!”

“거기서요?”

“슉! 슈슉!”

돌겠네, 진짜.

선생님이 손거울을 흔들었지만, 손거울은 슈슉 하는 일 없이 미약하게 반짝이기만 했다.

“지금은…. 슈슉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이 미지를 쓰러뜨렸어. 그 뒤로도 밤길에 귀신이 나오긴 했는데.”

“한 번 이겨보니까 무섭지 않더라구.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할 겸 보이는 대로 쓰러뜨리고 다녔어.”

어릴 적에 있었던 훈훈한 추억처럼 말하기엔 너무 괴상한 일이었다.

“그리고는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대학교에 가고. 그 이후로는 한동안 미지를 못 봤지.”

“손거울도 쓸 일이 없으니까 완전히 잊고 있다가, 학생회에 들어오게 된 거야.”

“학생회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내가 학생회 고문이라서. 밤에 학생회실에 불이 켜져 있길래 우연히 알게 됐어!”

“지금은 미지도 제대로 안 보이고, 싸우는 데 도움은 안 되지만...”

“선생님은 힘든 사람을 보면 지나칠 수 없거든.”

도래솔 선생님은 진심을 담은 것처럼 해맑게 웃었다. 어수룩하지만 선생님을 미워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걸까.

“자! 그러면 이걸로 대답은 끝!”

“질문은 하나만 하기로 했지? 이제 점심시간 별로 안 남아서 선생님도 머핀 먹어야 한다고.”

“아, 죄송해요. 그러면 마저 드세요.”

“웅! 이따 보자!”

아쉽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 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다.

나는 도래솔 선생님께 인사하고 학생회실을 나왔다.